

낙동강 이야기



이 자 영 | (주)ED환경디자인 팀장
(ly3331@hanmail.net)

강은 저마다 저 나름의 이야기를 가지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흐른다.
우리네 인간 문명의 발전과 쇠락에 대한 역사는 강을 빼놓지 못한다.

낙동강 역시 그러하다. 수많은 사연들과 또 희망들을 품고 있다.
낙동강이라는 주제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더욱 어렵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이제 '낙동강'이라는 이름에 주목해보기로 하자.
우리가 가진 이름들이나 또 사물이나 식물에 붙여준 이름들을 살펴보면 저 나름의 뜻과
이야기 혹은 꿈을 담고 있다.
그러면 낙동강의 이름은 무슨 뜻일까?
여기서부터 낙동강의 이야기보따리를 풀어 보려 한다.



〈그림 1〉 노을에 물든 낙동강의 전경
(네이버 포토갤러리, 망대암산(h3603)님의 작품)



〈그림 2〉 낙동강에 비친 구름
(구미 DSLR 동호회카페, 페이스오프(yu9999)님의 작품)

가락국의 동쪽에 있는 강, 洛東江

낙동강의 의미는 가락국(가야국이라고도 한다.)의 동쪽에 있는 강이라는 뜻이다.

이 말을 곰곰이 씹어보면 가락국이 그 당시 소위 '잘나가
는' 나라였는지 않을지 하는 궁금증이 든다. 우리가 세계의 지
리사를 통해 지명이 붙여진 유래를 보면 약소국보다는 강대
국을 중심으로 그 이름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면 가락국이 당시 어떤 나라였고 낙동강을 그 속에
서 어떤 역할과 의미를 가진 강이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가락국 혹은 가야국으로 불리는 이 나라는 BC 42년 김수
로왕의 탄생을 기점으로 그 역사가 시작된다. 가락국은 때로
는 국제 및 국내 교류를 통해 가락의 우수한 문화를 주변에
전파하였고 고구려, 백제, 신라와 대등한 위상을 가지고 역사
하였으나 역시 영원하지는 못하였다. 한때 그렇게 강성했던
이집트나 로마나 페르시아가 그러했듯이 가락국은 멸망하

여 신라에 흡수되고 만다.

그런데 이 가락국이 존재한 역사가 무려 5백년이다. 조선 왕조와 맞먹는 기간이다. 가락국이 고만고만한 약소국 가운데 하나였다면 이렇게 긴 기간 동안 국가로서 유지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에 문헌상에 나타난 가락국을 살펴보고자 삼국유사에 가락국기 편을 보면 가락국의 건국신화에서부터 패망까지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그럼 여기서 낙동강을 중심으로 번성했던 동방의 제국, 가락국의 건국에서부터 패망까지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역사문화적 맥락에서의 이해야말로 지역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첫 단추일 테니 말이다.

황금알에서 태어난 김수로왕



기원전 57년 신라가 출현하고 기원전 37년에는 주몽이 나타나 고구려를 세우고 기원전 18년에는 온조가 백제를 개국한다.

삼국은 각기 세력 확장을 위해 땅이 비옥하고 농산물이 풍부한 지역을 두고 다투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낙동강을 중심으로 펼쳐진 감해지역이었다. 그러자 이에 반발한 지방의 부족장들이 모여 지도자를 추대하기에 이르는데 그중 아도간이라는 족장이 꿈에 계시를 받고 구지봉에 모여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어라, 내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라고 노래하며 춤을 추는 의식을 행하게 된다. 그러나 돌연 구지봉 상공에 자색 빛줄에 금합이 달려 내려 왔다. 무리들이 달려가 열어보니 그 안에 반짝이는 황금알이 6개가 들어있지 아니한가.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자 알에서 각각 성스러운 빛이 나는 아이들 6명이 태어난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빛이 밝은 아이가 있었으니 이 동자의 이름을 김수로라고 짓게 된다. 김수로의 뜻은, 금에서 나왔다는 뜻과 우두머리라는 의미의 머리수자를 쓴 것이었다. 또한 알에서 나온 이 6명은 각각 나라를 건설하는데 아라가야(함안), 고령가야(함양), 대

가야(고령), 성산가야(성주), 소가야(고성), 금관가야(김해)가 각각 그것이다.

하늘이 내린 배필, 인도의 왕녀 허황후

이렇게 해서 김수로를 중심으로 가락국은 그야말로 태평성대를 열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문헌에 의하면 서기 48년), 가락국의 신하들은 김수로에게 장가들 것을 권한다. 사실 김수로왕은 늦은 나이까지도 결혼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대왕께선 아직 아름다운 배필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신들의 구수 가운데서 결맞는 남자를 가려서 궁에 들이고자 하오니 왕후로 삼아 주옵소서.”

이에 김수로왕은 이렇게 대답한다.

“내가 이 땅에 내린 것은 하늘의 뜻이니라. 그대들의 염려할 바가 아니라.”

그러면서 명을 내려 망산도에서 배를 기다리라고 한다.

과연 망산도(경남 진해시 소재)에서 기다리니 바다 서남쪽에서 검붉은 깃발을 펼럭이면서 북으로 떠오르는 배가 있었다. 바로 그 배에 인도에 있는 아유타국의 왕녀 허황옥이 타고 있었던 것이다. 보고를 받은 김수로왕은 신하들에게 아름답고 화려하게 꾸며진 배를 보내 배에 타고 있던 일행을 육지로 맞으라 하였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인도의 왕녀는 배에서 내리지 않는다. 왕이 직접 오길 기다렸던 것이다. 이 부분에서 필자는 허황옥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심리전에 능하고 당장의 이익보다는 멀리 내다보는 혜안을 가진 여자라는 생각이 든다. 결국에는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김수로왕이 배까지 친히 몸소 나와 허황옥을 맞이하였으니 말이다.

한눈에 반해서였을까? 허황옥과 처음 만난 그날 김수로왕은 허황옥과 함께 침전으로 들게 되는데 침전에 든 허황옥이 하는 이야기가 이리하다.

“저는 본디 인도에 있는 아유타국의 왕녀로서 성은 허요, 이름은 황옥으로 올해 나이 16세이옵니다. 지난 5월 본국에 있을 때 부왕께서 어머니와 함께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락국의 수로왕은 하늘이 내려 왕의 자리에 앉게 된 성서로운



〈그림 3〉 연극 가야여왕 허황옥 포스터

인군으로 새로운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으나 아직 배필을 얻지 못하고 있으니 그리로 가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연으로 저는 바다를 건너서 이곳에 와서 아녀자의 몸으로 이렇게 뵈게 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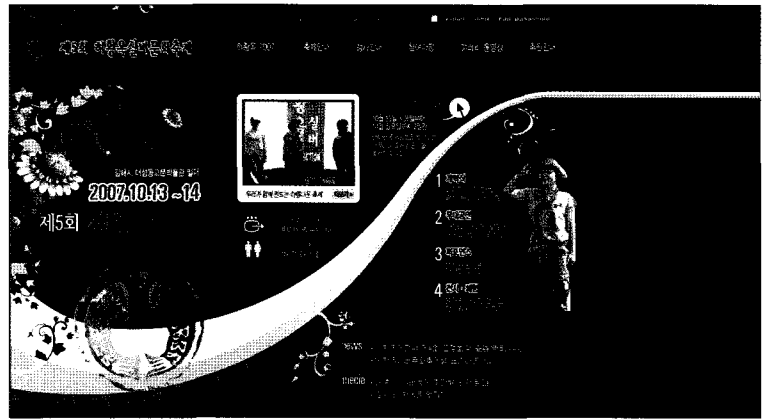
참으로 흥미로운 이야기이다. 허황옥은 안락하고 풍요로운 왕궁생활과 부모님을 떠나 미래 자신의 남편감이 있을 거라는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그 먼 길을 항해해야하는 것을 마다않고 적극적으로 찾아 나선 것이다.

고도의 심리전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나 적극적으로 진취적인 기상은 현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리라 보여진다.

그래서일까, 김해 문화의전당에서는 가야여왕 허황옥 이야기를 소재로 한 뮤지컬이 올려졌고 2007년에는 제5회 허황옥실버문화축제가 개최되는 등 최근 지역문화로 확산코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다음의 포스터에서 보면 ‘가야여왕 허황옥, 찾아라, 떠나라, 창조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앞의 이야기를 통해 ‘찾아라, 떠나라’는 유추가 되는데 ‘창조하라’는 또 어떠한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

그 내용은 허황옥실버문화축제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시는 글에서 유추해볼 수 있다.

차문화, 불교문화 등 선진문화까지 가야에 안고 와서 여인 왕국이라 불릴 정도로 수로왕과 나란히 가야국을 통치한 허황후는 열 아들을 낳고 두 아들에게는 자신의 성을 물려준



〈그림 4〉 허황옥실버문화축제 홈페이지 메인화면

최초의 여성입니다.

우리는 이 의미 있는 역사적 여성인물의 모험심과 국제주의 및 문화성을 기리고 김해의 자랑스러운 ‘성평등’ 역사를 만방에 드러내며 잃어버린 왕국이 가졌던 자긍심을 새롭게 집단 무의식화하고 내면화하고자 이 축제를 5년째 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성평등은 법률적 제도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 성취한 면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할머니들은 성평등의 수혜자가 되기에는 스스로는 물론 국가나 지역의 문화적 의식적 노력이 더욱 필요한 지점입니다. (www.heohwangok.net에서 발췌)



〈그림 5〉 김수로왕(왼)과 허황후(오른)의 영정

그랬다. 허황옥은 김수로왕을 맞아 왕후로 거듭나면서 가야국을 다스리게 되는데 일찍이 문명이 발달한 인도의 선진

문물을 전파하게 된다. 차문화와 불교문화 등이 그것이다. 또한 김수로왕과 죽을 때까지 좋은 금실로 가정의 화목과 백성의 안녕을 위해 힘썼는데 김수로왕과의 사이에 낳은 열 명의 아들 중 두 명이 허씨 성을 물려받게 된다. 물론 김수로왕이 정말로 왕후를 사랑하여 그랬기도 하겠지만, 신하들의 반대라든가 가부장적이던 그 당시 정세를 미루어볼 때 왕후가 진실로 왕과 백성들과 신하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여인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허황옥에 대한 좀더 자세한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김병모 저 '허황옥 루트, 인도에서 가야까지'를 읽어보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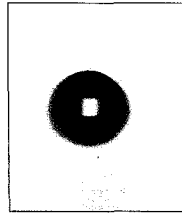
활기찼던 나라, 가락국

김수로왕의 가락국이 위치한 지역은 낙동강이라는 해상을 이용한 교역과 철이 생산되는 지리적 장점을 배경으로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이를 짐작케 하는 사건 중의 하나는 AD 57년경 신라의 유리왕이 죽고 석탈해가 4대왕이 되어 수로왕을 위협하던 일이다. 수로왕에게 위를 빼앗으려 왔노라라고 말하며 나타난 석탈해가 명분으로 나라를 빼앗기 어렵자 술수로 겨루자고 제안하였는데 수로왕에게 패하고 만다. 전쟁에서 진 석탈해가 가까스로 살아남아 김해에서 가까운 나무에 이르러 중국에서 온 배에 몰래 타고 피신하게 되는데 당시 김해에는 이미 중국배가 닿을만한 항만 시설까지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로왕은 물러가는 석탈해를 수군 5백척을 동원해서 추격했으니 이는 수로왕이 왕위를 넘보는 자에게 보인 막강한 수군력의 과시라고 하겠다.

또한 철의 산지를 중심으로 가락국은 무기제조에 능통했을 것으로 짐작이 간다. 그래서 일찍이 주변국들보다 철기문화가 성숙하였고 이를 통한 강력한 국력을 뒷받침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낙동강이나 섬진강을 이용해 내륙에서 바다로 진출이 용이했던 가락국은 해상왕국으로서 활발하게 교류를 했던 흔적이 있다. 다음은 '철의 왕국 가야에 나오는 가야의 대

외관계에 대한 일부 내용이다.



3세기 후반에 편찬된 『삼국지』는 가락국을 비롯한 가야의 해상왕국적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줍니다. 황해도

의 대방군에서 일본열도로 가는 바닷길의 중심에 김해의 가야국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김해, 마산, 고성 등의 가야는 중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고대 동아시아의 중개무역항이었습니다. 김해, 창원, 고성 등의 가야고분에서 출토되는 중국과 일본의 문물은 이런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김해 화현리 조개무지에서는 화천(왕망전)이라는 화폐가 출토되었습니다. 화천은 10년여 밖에 사용되지 못한 화폐이지만, 평양과 일본열도에서도 출토되고 있습니다. 3세기 경에 황해도에서 일본열도를 왕복하는 데는 2년 반 정도가 걸렸답니다. 한번 왕복하는데 2년 이상이 걸렸던 바닷길의 곳곳에 10년 밖에 통용되지 않은 화폐가 흔적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닷길의 왕래가 얼마나 빈번했던가를 보여줍니다. 김해를 비롯한 가야국은 가까운 마한과 진한은 물론, 멀게는 대방군과 일본열도로 철을 수출했습니다. 가야에서 생산된 철과 중국, 일본의 문물이 교환되었고, 가야의 여러 나라는 이를 바탕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부강 그 이면에는 반드시 어두운 면이 있기 마련인 것이 세계의 역사를 살펴봐도 보편적인 이치인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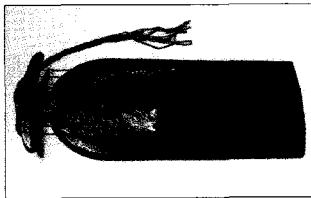
우리가 흔히 강력한 왕권을 세계사에서 꼽으라고 하면 이집트의 피라미드일 것이다. 피라미드의 그 웅장한 스케일과 더불어 이집트의 왕들은 그 안에 죽으면서 엄청난 유물과 자신의 신하들과 백성들을 함께 묻었다. 가락국 역시 이러한 패턴을 따라가는 듯하다. 물론 주변의 백제나 신라 역시 한때 순장풍습이 있었다. 그러나 가락국은 여느 나라보다 오랫동안 순장을 행해왔는데 가령 지산동 4호 고분의 경우 12명



〈그림 6〉 최첨단기법으로 복원된 가야 순장녀와 함께 발견된 유물

이상의 순장자가 발견되었을 정도다. 안타까운 것은 순장자의 구성이 늙은 신하와 무사에서 젊은 부부와 어린 아이, 16살 나이로 추정되는 여인까지 얼마나 많은 사연들과 눈물들이 담겨 있을까 하는 것이다. 이를 소재로 한 소설로 김훈 작가의 '현의 노래'가 있으니 상상의 나라를 더하고 싶은 독자는 참고할 만하다.

낙동강에 대한 이해는 가락국에서부터 시작



〈그림 10〉가야의 수준 높은 문화와 기술 수준을 짐작케 하는 현약기

들여다보면 볼수록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가락국이라는 나라다.

지금까지 낙동강 이야기를 위해 낙동강이

라는 이름에 담겨진 가락국의 이야기를 들여다보았다. 낙동

강은 가락국의 동쪽에 있는 강이라는 뜻이며 가락, 가야의 어원은 사실 인도의 드라비다어로서 그 뜻은 물고기라는 말이 있다. 역시 인도에서 온 허황옥이 왕후가 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김수로왕과 허황옥이 만난 역사적 사실이 믿기지 않는 설화로만 남겨져 있지만 가락국의 그 당시 정세와 문헌에 의한 국제적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가락국은 중국은 물론 인도까지 왕래가 활발하였던 대무역국가였으며 철기문화를 바탕으로 강력한 왕권중심의 체제를 이룬 나라였다. 우리가 역사를 이야기할 때 보통 고구려, 신라, 백제만을 중심으로 그 시대를 이해하기 쉬운데 그래서 낙동강을 중심으로 가락국의 역사를 더듬어 보는 일은 우리가 어쩌면 놓쳤던 고대국가 역사의 한 부분을 이해하고 바로 그것이 지역을 이해하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더욱 값진 일이라.

앞으로 낙동강을 중심으로 고대국가에 대한 더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당당한 역사의 주역으로서의 가락국이 인식되길 바라면서 글을 맺는다. 🍀